
서 평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혁명성’

[서평] 정병설(2016),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29쪽.

류 준 경*

1.

근대적인 문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탐구한 대상은 ‘문학성’이었다. 그리고 그 문학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언어구조를 촘촘하게 파악하여 그 속에 놓인 미학적, 기호학적 질서들을 탐구해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의 문학 연구는 텍스트의 ‘문학성’을 해명하기보다는 문학 제도, 문학 현상 등 문학을 하나의 문화로 이해하고, 그 문화 현상을 해명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문학 매체를 주목하고, 그를 둘러싼 현상을 탐구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신문, 잡지, 서적, 방송 등의 매체나 그와 관련된 독자, 시청자, 관람자 등의 특성 및 그와 관련된 읽기, 보기, 듣기 등을 통하여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 고전문학, 특히 고전소설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언어구조를 통한 ‘문학성’의 해명보다 매체적 특성을 주목하는 연구의 전통이 일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찍부터 존재했다. 대중적 성격이 강한 소설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소설 연구에서 매체를 먼저 주목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고전소설의 경우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문학성’으로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에 근·현대문학 연구에서보다 오히려 매체에 대해 더욱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김동욱 선생의 방각본(坊刻本)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방각본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된 서적을 말하는데, 선생은 1970년에 이미 방각본을 주목하여 방각본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이어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179종의 방각소설 자료들을 수집 영인하여 총 5권의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1973~1975)을 자비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각본에 대한 연구는 이후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류탁일, 1981),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이창현, 2000) 등으로 이어졌고, 최근 들어 대여용 필사본 소설인 세책소설에 대한 연구가 세책고소설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세책고소설연구회 편, 『세책고소설연구』, 2003). 고전소설 연구에서 매체적 특성을 주목하는 연구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전통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소설이 얼마나 유통되었고, 얼마나 향유되었는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소설유통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성과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방각소설, 세책소설, 필사본소설, 활자본소설 등에 대한 저서 수준의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이들을 아우르며 소설의 유통과 향유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연구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고전소설의 개별 매체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었음에도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전체상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기실 조선시대 소설, 특히 한글소설은 주변부 문학이었기에 관련 기록도 부족하고 소설책 실물 역시 대부분 일실되고 말았다. 전체적인 유통 상황을 그리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선시대 소설 향유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한 연

구 성과가 제출되어 주목에 값한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정병설 저, 2016, 서울대출판문화원)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근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장서각 및 국내 여러 대학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여러 사설박물관과 개인 소장자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나아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산재한 자료를 두루 찾아보아 고전소설 자료의 실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새롭게 발굴된 문헌기록들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소설의 유통과 관련된 안목을 키워 조선시대 소설유통¹⁾의 전체상과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이 저서의 핵심적 주장은 조선시대 소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유통되어, 그 파급력이 혁명적이었다는 점이다. 곧 조선시대 특히 19세기 무렵부터 우리 사회는 “소설을 통해 전국이 하나의 지식망, 하나의 정보망으로 엮이면서 이념과 사상이 뿌리내(39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고전소설 연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고전소설 연구의 주류적인 경향은 고전소설 작품 속에서 전통적인 지배이념과 결이 다른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각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²⁾,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배이념의 파급력을 극대화한 점에서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매체로서의 소설

1)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소설유통을 논의할 때에는 ‘구비적 유통’을 유통의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본 저서에서는 이 점을 구별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실제 고전소설의 유통에서 구비적 유통의 영향은 상당하리라 짐작되며, 이 부분을 주목하여 논의한 성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본 저서에서는 ‘소설유통’을 ‘소설 서적의 유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에 필자 역시 여기서는 ‘소설유통’을 구비적 유통을 제외한 소설책의 유통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2) 대표적인 성과로 ‘판소리계 소설’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춘향전>의 주제를 춘향이 봉건적인 열이념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성을 실천한 것으로 이해한다. 지배적인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와 사상을 실천하는 면모를 발견한 것이다. 곧 신분제의 모순, 경직된 도덕이념에 대한 풍자, 개인의 자발적인 감정에 대한 존중 등이 드러나는 점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은 기존 지배이념으로 혁명적 유통구조를 만들어 조선의 이념적, 사상적 통일에 기여하였고, 근대 이후에는 이 유통구조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사유가 확산됨으로써 기존 지배이념에 벗어나는 새로운 사회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곧 매체로서의 소설의 의의는 조선의 이념적, 사상적 통일에 기여하고, 이후 새로운 정보와 사유의 확산의 통로가 되는 ‘혁명적 유통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소설의 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고전소설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향을 수정하게 한다. 어쩌면 고전소설의 의의는 그 내용보다 매체가 이룩한 ‘혁명적 파급력’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고전소설의 ‘혁명적 파급력’을 주목한 정병설 교수의 논의를 쫓아가면서 그가 주장한 “소설유통의 혁명”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2

18~9세기 무렵 소설유통의 혁명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실제로 유통 혁명이 일어났다면 현전하는 18~9세기 서적의 대부분이 소설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소설유통의 혁명을 증명하는 당대인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18~9세기 문헌 중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소설유통의 혁명적 확산을 전언하는 자료도 남아 있지 않다. 소설 향유의 모습을 전언하는 기록 대부분은 다른 내용을 기술하다가 부수적으로 기록된 것일 뿐, 대단위적 문화 현상으로 소설 향유를 주목하고 정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18~9세기의 소설 향유가 특기할 만한 새로운 문화로서 대단위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만약 대단위적인 향유가 이루어졌다면 그 향유 범위는 얼마나 되며,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 전통시대 소설은 한문이 아니라 언문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주로 향유했던 문화로 하위문화에 가까웠다. 따라서 주류 문인들은 소설에 대해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문화를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소설은 그저 주변부 문화로 향유되고 버려졌을 뿐, 정리되고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소설이 크게 융성한 18~9세기조차도 실물이나 구체적인 기록으로 그 상황을 알기 어렵다. 주변 자료와 추론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저자의 작업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제출된 것이다. 조각조각 전하는 자료와 다행히 현재까지 전해진 몇몇 소설책들, 그리고 당시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18~9세기에 “소설유통의 혁명”이 일어났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소설유통의 혁명”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소설유통의 혁명, 곧 폭발적인 소설의 확산을 증명하려면 다양한 주변 조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소설 독서가 가능한 독서 가능 인구, 소설이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과 유통망 및 구매력을 유지할 만한 책값 수준, 유통된 소설의 총량을 추정할 만한 주변 자료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바로 이 점들을 확인하며 “소설유통의 혁명”을 주장한다.

먼저 저자는 인구 수준과 문해율을 살핀다. 소설이 큰 인기를 끌려면 그에 걸맞은 독서 가능 인구가 있어야 하기에, 소설 독자 대중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조선 인구가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1789년에 작성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조선의 총 인구는 7,403,606명이었다. 하지만 역사학계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말 조선의 실제 인구는 호구총수의 2배인 약 1,500만 명 정도였으며, 서울의 인구 역시 30~35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인구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독서 가능 인구이다. 독서 가능 인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해율이 중요하다. 조선시대에 문해율이 조사된 적이 없기에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하지만 근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으로 추산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193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근대적 인구센서스의 자료³⁾ 바탕으로 조선

후기 한글소설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문해율은 25%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고종 16년 실시된 과거 응시자가 20만 명 이상이었던 점도 참고하여, 1800년을 기준으로 천오백 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성인의 25%인 300~400만 명이 한글 해독자이고, 이 중 20% 남짓한 70~80만 명이 여성으로 추정하였다. 이들이 바로 잠재적 소설 독자인 것이다.

독서 가능인구 수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책값이다. 조선 전기의 서적은 상당한 고가였다. 『대학』, 『중용』과 같이 비교적 얇은 책 한 권 값이 논 2~3마지기나 될 만큼 엄청났다. 이런 조건이라면 소설책은 고가의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자는 선행연구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조선전기와 달리 조선후기에 책값 및 종이값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밝힌다. 이어 오카쿠라 요시사부로의 전언을 통해 1890년대 초에 방각소설 한 권이 대략 3~4전, 곧 성인 하루 식비에 채 미치지 못하는 쌀 한 되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한다. 방각소설이 대중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격이 낮아진 것이다.

저자가 또한 힘들여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전국적인 상업적 서적 유통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 조선후기에 전국적인 상업 유통망이 형성되었지만, 실제 장시의 유통되는 물품을 기록한 자료에 서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883년 서상윤이 기독교 서적을 한 해 동안 1,000권 이상 팔았다는 전언과 1913년 176명의 행상이 30여 만 권의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였다는 기록 등을 참고할 때, 이전부터 충분히 서적 유통망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8~9세기부터 서적 유통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단위적 유통이 갑작스럽게 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00~400만에 달하는 문해 인구, 낮아진 책값, 전국적인 서적 유통망의 가능성 등을 통해 소설유통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한 다음, 저자

3) 조선총독부(1930), 『昭和5年 朝鮮國勢調査報告』(全鮮篇 1권).

는 조선후기 소설유통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유통된 소설의 총량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저자는 유통형식에 따라 소설을 필사소설, 세책소설, 출판소설로 구분하여 검토하는데, 필사소설은 개인이 필사하여 보관하거나 빌려보는 방식의 서적을, 세책소설은 대여를 목적으로 주로 필사를 통해 만든 서적을, 그리고 출판소설은 주로 방각본으로 간행된 소설을 말한다.

처음 소설은 필사본으로 향유되었는데, 한글 창제에 따라 한글 독자층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채수(蔡壽, 1449~1515)의 『설공찬전』이나 낙서거사(洛西居士, 李沆(?), 1474~1533)의 『오륜전전(五倫全傳)』 등은 ‘여항(閭巷)’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향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소설이 보다 본격적으로 향유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17세기에 들어 다양한 양식의 한글소설들이 출현한다. 하지만 아직 개별 독자에 의해 필사본을 베껴서 주고받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소설이 향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8세기에 들어 소설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저자는 1740년 무렵 세책집의 존재를 언급한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기록과 18세기 초반 규방여인의 소설 향유 기록 등으로 볼 때 “1720년대 이전의 어느 시점”(123면)에 서울에 세책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세책에 빠져 “가산을 기울인 사람도 있다”는 18세기 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전언으로 보아 18세기 말 무렵에 세책이 크게 성행하였다고 한다. 여성들의 소설 향유가 하나의 주요한 문화현상으로 인지되고 문젯거리로 생각될 정도에 이른 것이다.

동시에 18세기의 주요한 사건은 방각소설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1725년 전라도 나주에서 간행된 한문본 『구운몽』, 1780년 “경기(京畿)”에서 간행된 『임경업전』 등과 1800년에 『소대성전』 간행본을 보았다는 이옥(李錡, 1760~1815)의 기록 등이 방각소설의 출현을 알리는 자료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구운몽』, 『임경업전』 등은 본격적인 방각본이

아니라 관판(官版)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녔다고 판단하여 대략 18세기 말, 구체적으로 178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방각소설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간행한 소설이라면 무엇보다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곧 방각본으로 간행된 서적의 총량을 대략이라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방각소설은 서울(안성 포함)과 전주에서만 간행되었는데, 경판과 완판은 각각 50종과 20종 정도의 소설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방각소설만으로 유통된 방각소설의 총량을 짐작할 수 없지만 출판비용과 책값을 통해 대략적인 간행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저자는 세창서관 주인 신태삼이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증언한 기록과 1917년 문집 간행에 대한 선행 연구⁴⁾ 등을 참고하여 방각소설 하나를 발행하면 최소 300책 이상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현전하는 50여종의 방각소설과 동일 작품이 여러 번 간행되었음을 고려하여 “적게 잡아 (...) 계산해도 십만 책이 넘으니, 한 시대를 잘라 보아도 성행기에 이 정도의 방각소설이 유통”(109면)된 것으로 보았다. 최소 10만 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방각본이 가장 성행했다고 추정되는 19세기 중후반 서울의 인구가 35만 정도였으니 방각소설 10만 책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저자는 방각소설과 함께 세책소설의 수량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 최남선의 기록에 따르면 1910년경 서울의 마지막 전통적 세책집에는 120종 3,221책이 있었다.⁵⁾ 이것이 전통적 세책집의 정확한 규모일 수는 없다. 쇠퇴기여서 줄어든 장서수일 수도 있고, 이전 세책집의 장서가 집적되어 늘어난 장서수일 수도 있다. 이에 저자는 규장각에 소장된 「언문책목록」을 주목한다. 이 목록은 임신년, 곧 1872년(또는 1812년)에 필사된 것으로 대부분 한글소설인 총 222종의 작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4) 류탁일(2000), 『성호학맥의 문집간행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5) 최남선(1938),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정도의 작품수라면 개인의 소장목록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책집의 장서 목록으로 이해해야 하며, 222종이라면 “어림잡아 오천 책이 족히”(102면)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곧 최남선이 조사한 세책점은 장서량이 줄어든 쇠퇴기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병설 교수는 책값의 5~10% 수준의 대여비를 고려하여, “수만 권 이상의 세책소설이 그 10배, 20배 이상 되는 독자와 만났을 것”(102면)이라고 하였다.

결국 저자는 19세기 중반 무렵 서울에는 적어도 수만 책의 세책소설이, 전국적으로 십만 이상의 방각소설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거기에 이에 준하는 양의 필사소설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소설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에 한반도에 유통되던 소설이 “수십만 책 이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삼십여만 명이 사는 서울에 최소 십만 권 이상의 소설이 유통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소설책이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수십만 책의 소설이라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소설의 인기가 이 정도라면 당연히 보다 대중적인 기호를 반영/창출하는 소설의 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고전소설의 내용은 유교적 지배이념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한글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유교이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뿐 ‘지금, 여기’의 문제를 거론하지도, 개인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도 않았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정도의 저항이나 『신미록』에서 민란을 다루는 소재의 현실성 정도가 조선시대 소설출판의 최대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이유를 조선시대 출판의 정치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정치적 배경, 특히 정부의 극도로 엄격한 사상적 통제를 주목한 점은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인데, 『설공찬전』 필화 사건과 『명기집략(明紀緝略)』 서화(書禍) 사건, 천주교 금서(禁書) 사건 등의 개별 사건 검토를 통해, 전제왕권에 따른 엄격한 정치적, 사상적 통제가 서적 유통 제한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검열 제도조차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엄혹한 정치 환

경”(137면)으로 저술과 출판이 위축되었고, 소설은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었기에 엄격한 정치적 제약과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뒤늦게 크게 융성하여 독서의 저변을 크게 넓힐 수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교적 “지배이념을 한 발도 벗어나지”(139면)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조선시대 소설이 수십만 권이 유통될 만큼 혁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엄격한 사상 통제로 인하여 그 내용에서 혁명적 성격을 띤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지배이념을 담고 있는 소설이 혁명적으로 유통되어 조선의 이념적, 사상적, 문화적 국가적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혁명적 소설유통으로 마련된 정보 유통망을 통해 근대적 사유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본다. 바로 이 점에서 소설유통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앞서 언급했듯이 18~9세기 소설유통의 실상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하기 어렵다. “혁명적 소설유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하는 고문헌에서 소설이 절대적 다수를 접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대단위적 문화현상으로서 소설 향유를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과연 백만 권 이상의 소설책이 유통되었을까 의문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 곧 “혁명적”이라는 주장에 값할 만큼 소설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주변 증거 역시 ‘주변’ 증거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많다.

예컨대, 문해 인구 추정에 사용된 1930년 국세조사 자료의 경우, 필자 역시 이 자료를 통해 소설 독자층을 검토한 바 있는데, 본 저서와는 다른 논지로 활용하였다. 1890년 이전 출생 여성의 문맹률이 94%로 나타나기에, 조선시대 여성독자층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⁶⁾

이는 동일 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문맹률이 서울과 타지역이 크게 차이 나, 소설의 주요 독자인 여성독자층이 서울에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전국적인 소설유통망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지만, 장시의 거래물품에 소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나 전문매매상이 보이지 않고 잡화의 한 품목으로 판매되던 사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큰 문맹률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소설의 전국적 유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방각본의 성행 역시 저자의 추정만큼 크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판방각소설의 경우 1850~60년대에 대부분의 작품이 간행되고 이후에는 분책(分冊)이나 보각(補刻) 등이 주로 이루어진다. 정말 크게 성행하였다면 판목을 다시 조성하고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축했을 것인데 이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⁷⁾ 시장이 생각만큼 크지 않았기에 기존 판목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방각활동이 진행된 것이다. 동시에 완판방각소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간행이 집중된 시기는 1890년대~1900년대이다. 완판방각소설의 전성기는 1890년대 이후인 것이다. 20세기가 거의 다 된 늦은 시기에 판목이 조성되어 전파되었기에 그 성행 정도나 영향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경판방각소설은 서울의 여성독자층을, 완판방각소설은 호남의 남성독자층을 겨냥한 것으로 이해하는 선행연구를 참고한다면⁸⁾, 방각소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통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방각소설의 출판과 향유의 범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6) 류준경(2001),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7) 1850~60년대에 대부분의 경판방각소설이 간행되고, 1870년~1880년대 후반까지는 기존의 판을 보각하거나 복각하는 수준에서 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1880년대 후반에 들어 부분적으로 개각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8) 류탁일(1981),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류탁일(1989), 『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세책소설 역시 서울에만 존재하였던 것으로 주로 여성이 이용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서 높았던 여성 문맹률을 고려한다면 그 향유층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세책점의 성행 정도 추정에 있어서 규장각에 소장된 「언문책목록」을 활용하였다. 222종의 언문책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이 자료를 세책집의 대출목록으로 이해하고, 당시 세책점의 보유장서수를 5,000책 이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데 「언문책목록」의 서명은 『언문고시』로, 언문책의 목록은 그 뒤에 첨기된 것이며, 목록 역시 제목만 제시될 뿐 책 수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책집의 대출목록이라기보다는 당시 언문책들의 제목을 정리해 놓은 것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어떤 한 세책집에 보유하고 있던 서적의 기록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동시에 222종 서적의 책수를 총 5,000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목록에 제시된 많은 서적이 짧은 분량의 서적이며, 실제 장편소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왕실의 「연경당언문책목록」의 경우도 총 206종이 기록되어 있는데, 책수는 모두 2,652책이다. 고종 때 왕실의 장편소설 수요로 중국소설을 대거 번역했던 일을 생각하면,⁹⁾ 우리 장편소설 작품의 거의 대부분이 왕실에 소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경당언문책목록」이 당시 가장 많은 한글소설 소장목록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조사한 세책집의 목록은 쇠퇴기 세책집으로서 이전 시기 세책집의 자료들이 집적된 것일 수 있다. 특별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사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방각소설, 세책소설 등의 유통이 “혁명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상당히 많은 양의 한글소설이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혁명적”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조선시대 소설유통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주변자료와 새로운 방법론 등을 통해 이에 대해 보다

9) 류준경(2000),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화논총』 26, 한국문학회.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고, 정병설 교수의 본 저작 역시 그 하나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수많은 자료 검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소설의 “혁명적” 유통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제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으니, 앞으로 논란의 활성화를 통해 조선시대 소설유통 관련 논의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4.

혁명적 소설유통을 주장하는 논의와 함께 본 저서에서 주목되는 주장은 저술과 서적 출판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를 정치적 배경-엄격하고 가혹한 억압과 통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곧 전제적 왕조 국가의 사상 통제가 저술과 서적 출판 발달을 저해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박세당이 『사변록(思辨錄)』으로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문집 간행에 앞서 교정을 통해 후인들이 원고를 수정하기도 하며, 송시열과 같이 추앙받던 인물의 문집조차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느라 판목을 바꾸기도 하였다.¹⁰⁾ 분명 “사상 통제”로 이해할 일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출판이 융성하지 못하고, 소설의 내용이 유교적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전제 왕조 체제의 억압적 사상 통제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조선 사회가 일본, 중국보다 성리학적 유교이념이 특히 강하였지만 그것을 억압적 사상 통제로 이해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유교이념의 강화는 국가의 억압적 사상 통제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억압적인 통제에 따라 유교이념이 강화된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전반

10) 오향녕(2008), 「우암 송시열 문집의 편찬과 간행」,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적인 사회적 분위기 역시 유교이념을 강력한 사회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상업적 출판과 소설의 내용에서 유교이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유교적 이념을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욱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후기에 들면 “유교적 이념”은 누구나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기능을 했다. “양반”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치는 누구나 바라는 사회적 자본과 같은 것이었다. 모두 유교를 중시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느낀 것이다. 실질적인 양반의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으나 관직을 사거나, 호적에 유학(儒學)으로 기재하거나, 혹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 노력한 것 등은 모두가 양반이라는 사회적 기호(자본)를 향유하고자 노력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고전소설의 내용이 유교적 지배이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검열을 둘 필요도 없었던 엄혹한 정치현실 때문이라기보다 유교적 지배 이념을 사회적 가치로 이해하고 ‘향유’하려던 당대 사회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본다.

5.

저자가 주장한 “소설유통의 혁명”은 한글소설의 역사적 의미를 매체사적 관점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소설유통의 총량이 과연 “혁명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 한글소설이 세책소설과 방각소설로 크게 융성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한글소설유통의 “혁명성”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한글소설이 크게 성행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연구로의 진전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글소설의 유통이 크게 성행하였다면 당연히 향유층의 분화는 필연적이다. 이전시기 “전책(傳冊), 녹책(錄冊)” 수준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

나라 성별, 지역, 계층 등에 따른 향유층의 분화와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세책소설의 발달이 한편으로 방각소설의 출판을 추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유층의 분화와정이면서 동시에 지역적 확대 가능성일 수 있다. 동시에 세책소설과 방각소설은 그 매체적 특성에 따라 성별, 지역, 계층의 분화와 함께 통합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매체의 특성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미 저자는 한글소설의 대단위적 유통이 조선의 이념적, 사상적, 문화적, 국가적 통합에 크게 기능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한글소설이 이룩한 이념적, 사상적, 문화적, 국가적 통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책소설, 방각소설과 같은 매체의 차이가 이들 통합(혹은 분화)에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설유통의 역사와 매체사적 의의의 개략적인 흐름이 이제 정리되었기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고전소설 연구가 답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